

미수거래의 위험성

미수거래는 고객의 투자이익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잘못된 주가예측 및 시장의 변화에 따른 추가하락으로 투자원금 이상의 투자손실을 기록할 수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 투자 시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되므로 이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속합니다.

■ 미수거래의 정의

미수거래란 유가증권 거래 시 증권회사가 정한 위탁증거금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컨대, 증권회사가 정한 위탁증거금율이 40%(현금10%,대용증권30%)인 경우 투자자가 1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현금 10만원과 대용증권 30만원(또는 현금 40만원)을 위탁증거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탁증거금율은 매수하고자 하는 유가증권별로 다르므로 거래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미수금액의 정리

투자자가 미수금액을 결제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권회사는 결제 기일의 다음 날에 투자자의 미수금액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액을 회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회사가 미수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 합니다.

반대매매는 거래소나 코스닥의 장 개시 동시호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대매매의 순서는

- ① 미수금액을 발생시킨 주식
- ② 동일종목(보통주와 우선주는 다른 종목으로 간주)
- ③ 가장 최근에 매입한 주식
- ④ 종목 코드가 빠른 번호의 종목순 입니다.

반대매매를 거치고 난 후에도 남아있는 미수금액에 대하여 투자자는 연체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미수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수거래의 위험성

투자자가 미수거래를 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원금 보다 많은 주식을 거래하게 되며,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미수금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 시 주식투매가 일어나 주가 하락폭이 급격히 커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에 의한 미수거래 결과로 투자자 개인의 금전적인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기적인 미수거래로 발생한 미상환 미수금액은 투자자 개인신용에 악영향을 주어 향후 금융 거래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된 미수거래의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속합니다.